

#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이 치유농업참가자의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만족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상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국 문 요 약

최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정부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전문 인력 배출 등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여건 조사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와 인과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치유농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설체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체험유형의 하위변수를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으로 구분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치유농업프로그램 체험자들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59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v3.4와 SPSS v22.0를 사용하여 매개변수가 단수인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체험유형 모두가 만족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험유형 모두가 재방문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는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을 제외하고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체험의 구체적인 체험특성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의 행동을 규명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치유농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로는 조절변수가 도입된 조건부과정 모형을 통한 조절된 매개분석이나 연구에서 도입된 매개변수 외에 다른 매개변수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치유농업,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 만족도, 재방문의도

## 1. 서론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이 강요받는 사회적 갈등, 심화된 경쟁 등은 개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누적시키고, 사회에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치매 증가, 노인 건강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10대~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통계청, 2021)이며, OECD 회원국들 중 인구대비 자살률 1위(10만명 당 582.5)라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2019) 등은 국민의 내면적 치유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5,500만명의 치매환자들에게 투여되는 비용은 연간 150조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40% 증가한 7,800만명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며 국가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식사하고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해결책으로 산림, 동물, 원예, 농작업 등 농업 환경 및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Iacovo & O'Connor, 2009; Hassink et al., 2015; Roest et al., 2010; Elings & Hassink, 2006).

국내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효과는 2013년 1.6조원에서 2017년 3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진청, 2020) 이를 농산업, 관광자원 및 보건복지 분야 등 전후방 산업까지 확대시킬 경우,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소관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 선행연구로 김옥자·하규수(2018), 고봉국·이재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shlee@efact.or.kr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cmheo@hoseo.edu

· 투고일: 2021-11-03 · 수정일: 2021-12-14 · 게재확정일: 2021-12-22

훈(2013) 등은 치유농업 공급조건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박수영(2016), 김아라(2016), 강대구 외(2018) 등은 다양한 국내 사례분석과 치유농업에 대한 고객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정부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은주·허철무,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농업 및 체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체험요인 중 어떤 요인이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요인을 밝히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치유농업 경영체의 성과 향상은 물론 농산업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2.1 치유농업

치유농업은 ‘농업이나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되어 왔다(Gim et al., 2013). 치유농업은 제공하는 활동 형태에 따라 산림치유, 원예치유, 동물매개치유, 농작업치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RDA, 2017) 치유농업의 형태별로 서로 다른 기관(산림청, 농진청, 지자체들 등)에서 추진하던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0.3.25.)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배출 등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2021.5.20.) 및 자격시험 관련 고시(2021.7.26.) 등이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녹색 치유(green care),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영농(social farming) 등으로 부르며, 정신적, 신체적 회복 및 직업재활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1,100개이상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Hassink, 2010) 일시적 질병을 가진 환자들 뿐만 아니라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Jung et al., 2016). 일본은 농복연계(農福連繫)라는 이름으로 농업 활동에 장애자들이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거나, 적절한 농사 활동을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자립과 건강을 유도하는 복지농업으로 발전시켰다(Kawate, 2015).

치유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치유농업 개념, 목적, 대상, 영역 등을 국가별로 명확히 설정하였으며(RDA,

2013), 치유농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업과 농촌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배승중 외, 2019). 최근 치유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운영사례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홍지영·이병오, 2016; 김경미, 2016; 김희동 외, 2012) 크게 ① 치유농업 분야의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 ②사업 참여자의 변화 및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③운영주체와 전문성 등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상우 외, 2020). 그러나 국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와 추진현황 등은 아직까지 해외 사례의 국내 도입을 위한 개념정립과 국내 여건 조사 및 전략적 방향성 제시 등과 같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2.2 체험경제이론

체험경제이론은 Pine & Gilmore에 의해 199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로 기록되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최윤영·이수범, 2018). 경제적 관점에서 고객은 상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함께 구매한다는 경제논리로 설명된다(류병덕·이정열, 2015).

체험경제라는 이론을 개념화하면서 기업의 수익창출을 강화시켜주는 활동으로 체험을 정의하였다(Pine & Gilmore, 1998). 이것은 기업 간 경쟁에서 제품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Pieska et al., 2019).

Pine & Gilmore(1998)는 체험경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인으로 교육(Education), 오락(Entertainment), 심미(Esthetics), 일탈(Escapism)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품개발에 반영되어야 차별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주광수·유양호, 2018). 또한, 체험자의 적극적 참여 의지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흡수(Absorption) 또는 몰입(Immersion)으로 구분하였다(Duan 외, 2018).

#### 2.2.1 능동적체험

##### 2.2.1.1 교육적체험

교육적 체험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Hwang & Lee, 2019)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박창연·신창열, 2019).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의지와 참여도를 요구하게 되며 체험자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높은 몰입도를 보인다(황진수·박슬기, 2016). 환경과의 관계가 흡수일 때 해당한다(송학준·이충기, 2015).

##### 2.2.1.2 일탈적체험

일탈적체험은 일상이나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으로 탈출하여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된다(하진영·윤철

민, 2018).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Lee et al., 2019)이며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행 등으로 해소되기도 한다(Hwang & Lee, 2019). 일탈적체험은 체험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정도가 크며, 오락이나 교육적 체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몰입으로 분류된다(고동환·박시사, 2018).

## 2.2.2 수동적체험

### 2.2.2.1 오락적체험

오락적체험은 체험대상에 대하여 즐거움이나 재미 등 쾌락적인 감정을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부숙진, 2018). 행사나 공연 등을 관람할 때 발생(Lee et al., 2019)하며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람을 통해 감성적이고 환상적인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므로 소극적 참여와 흡수에 분류된다(용석홍 외, 2019). 또한, 물리적 참여가 아닌 그 체험에 반응하는 것에 속한다(Pine & Gilmore, 1998).

### 2.2.2.2 심미적체험

심미적체험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체험자의 해석으로 정의하게 된다(Hosany & Witham, 2010). 자연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을 체험자들이 즐기면서(Duan et al., 2018),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기분에 대해 체험자가 내리는 평가를 의미한다(Manthiou et al., 2014). 이것은 시각적인 매력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문준호 외, 2019). 체험자들이 감각적 매력에 반응하는 수동적 참여(Hwang & Han, 2018)에 속하며 소극적 참여와 몰입으로 분류된다(황진수·박슬기, 2016).

## 2.3 만족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Oliver(1993)는 만족이란 소비자의 반응을 의미하며, 서비스나 제품이 소비자 경험 수준 대비 좋은 수준에서 제공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체험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Weiner(2000)는 서비스나 제품의 통제 가능성, 지속성, 원인의 책임소재 등의 3가지 요인이 소비 경험의 귀인과과정에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용 결과 보다 만족에 이르는 경로 자체에 더 중점을 두었다(송인암·장태현, 2018). 그 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소비자의 감성적 체험이 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성연·배현경, 2006; Philips & Baumgartner, 2002).

## 2.4 재방문의도

손환호(2016)는 재방문 의도란 소비자가 자기 구매경험을 근거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였다. 정수봉(2018)은 재방문 의도는 같은 제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 또한 김명락(2013)은 소비자의 소비경험에 대한 좋고 나쁨에 따라 재방문 의도는 결정된다고 하였다. 장영화·오익근(2014)은 관광분야에서의 재방문의도는 관광지의 속성 및 체험에 근거하여 소비자 자신이 다시 그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욕구라고 하였다.

## 2.5 가설의 근거

### 2.5.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관계

Pine & Gilmore(1998) 체험경제이론에서 체험유형과 체험자의 만족도 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동현(2009)은 테마파크에서의 체험요소가 방문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연구하였고, 장윤영·서원석(2014)은 쇼핑체험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김지희(2011)의 연구에서는 체험요인과 만족도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4가지 체험요소 모두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심미적 체험요소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오락적 체험, 일탈적체험, 교육적체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광수·한범수(2001)에 의하면 축제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축제 참가자가 사전에 축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경험하는 동안 개인이 내리는 심리적,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요인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참가자의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하며 이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2.5.2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이재곤·이규상(2012)은 재방문 의도를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한 후 체험 전반에 만족을 경험하고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성수(2012)는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체험 후 평가로 재방문 의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녕수연(2012)은 관광지의 체험속성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체험속성은 재방문 의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백안젤라(2017)는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 후 만족 여부에 따라 재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의 재방문 의도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시설 체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 2.5.3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신동주(2010)는 이벤트의 체험요인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체험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2019)은 해양

관광 참가자의 체험요인을 교육적, 일탈적, 심미적, 오락적 요인으로 나누어 체험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가운데 오락적 체험, 교육 체험, 심미적 체험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문정(2021)은 테마파크 내 체험요소로 엔터테인먼트, 교육적, 현실도피적, 미적 요소의 네 가지를 채택하였는데, 체험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가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체험유형이 행동의도인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III. 연구설계

#### 3.1 연구가설

치유농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와 인과성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치유농업체험 유형,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치유농업참가자의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체험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체험만족도와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가설 설정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의 하위변수는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체험유형을 독립변수로 체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수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단순매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치유농업시설 체험유형과 만족도와 인과관계,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가설이 필요하다.

또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총 효과와 만족도와 독립적으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 등이 포함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 3.1.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유형과 만족도 간의 인과 관계

**H1: 체험유형의 능동적체험과 수동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은 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2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 관계

**H2: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3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 관계

**H3: 체험유형의 능동적체험과 수동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4 매개효과

**H4: 만족도는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1: 만족도는 능동적체험의 교육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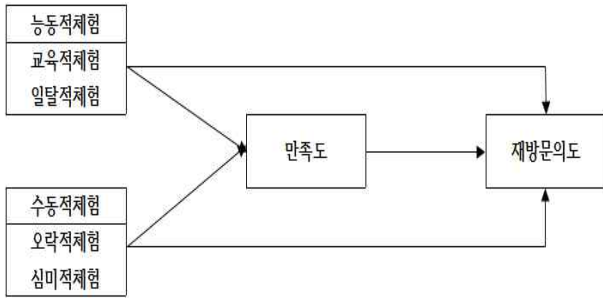
H4.2: 만족도는 능동적체험의 일탈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3: 만족도는 수동적체험의 오락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4: 만족도는 수동적체험의 심미적체험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3.2 연구모형

H3.1의 가설을 기반으로 치유농업참가자가 치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험유형(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방문의도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만족도를 경유하는 체험유형의 만족도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분석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치유농업참가자를 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pre-test를 실시하여 나타난 여러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 하였다. Naver Office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를 약 30일간(2021. 6. 01~ 2020. 6. 30.)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306부이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있는 47부를 제외한 25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SPSS Ver.22.0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정확성인 타당도 파악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에 근거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으로 변수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치유농업시설 체험 만족도를 경유하여 체험유형의 재방문의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 v3.4의 단순매개모형인 Model 4를 채택하여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추론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 검정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는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수를 제대로 기술하고 측정이 가능한 실질적인 측정변수들이 필요하며 각각의 구성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을 정확하게 정의해야한다. 또한,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자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복수의 가능한 조작적정의 중 본 연구의 내용에 가장 부합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 3.4.1 체험경제이론의 체험 유형

##### 3.4.1.1 교육적 체험

본 연구에서 교육적 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능동적 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정도로 정의한다.

##### 3.4.1.2 일탈적 체험

본 연구에서 일탈적 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능동적 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 느끼는 정도로 정의한다.

##### 3.4.1.3 오락적 체험

본 연구에서 오락적 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동적 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쾌락적 감정을 경험한 정도로 정의한다.

##### 3.4.1.4 심미적 체험

본 연구에서 심미적 체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하동현(2009)과 이정민(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동적 체험유형의 하나로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한 정도로 정의한다.

#### 3.4.2 만족도

본 연구에서 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김미홍(2019)과 김윤경(201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치유농업 체험 경험에 대해 사전에 기대한 가치와 비교하여 경험 이후에 참가자가 가진 긍정적 느낌과 감정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 3.4.3 재방문의도

본 연구에서 재방문의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장동등(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치유농업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구분    | 변수     | 정의     | 출처                                     |                        |
|-------|--------|--------|--|------------------------|
| 독립 변수 | 능동적 체험 | 교육적 체험 |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정도   | 하동현(2009)<br>이정민(2021) |
|       |        | 일탈적 체험 |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 있는 듯 느끼는 정도  | 하동현(2009)<br>이정민(2021) |
|       | 수동적 체험 | 오락적 체험 |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재미나 흥미를 느끼고 쾌락적 감정을 경험한 정도 | 하동현(2009)<br>이정민(2021) |
|       |        | 심미적 체험 | 치유농업 체험을 통해 분위기에 매료되고 감성적 즐거움을 자극한 정도  | 하동현(2009)<br>이정민(2021) |

|      |       |  |                        |
|------|-------|--|------------------------|
| 매개변수 | 만족도   | 치유농업체험 경험에 대해 사전에 기대한 가치와 비교하여 경험 이후에 참가자가 가진 긍정적 느낌과 감정의 수준 | 김미홍(2019)<br>김윤경(2019) |
| 종속변수 | 재방문의도 |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당 치유농업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 정도                            | 장동등(2019)              |

### 3.4.4 측정도구

모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별 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성별구분,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학력, 주거지역, 재산규모, 시설 선호 지역, 직업, 월간 평균 수입, 시설 체험 참가 이유, 체험 참여 빈도 등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여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측정도구

| 변인          | 문항 수  | 출처        |
|-------------|-------|-----------|
| 치유농업시설 체험유형 | 교육적체험 | 이정민(2021) |
|             | 일탈적체험 |           |
|             | 오락적체험 |           |
|             | 심미적체험 |           |
| 만족도         | 4     | 김미홍(2019) |
| 재방문의도       | 4     | 장동등(2019) |
| 인구통계학적 변수   | 11    |           |

### 3.5 조사대상의 특성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259명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특성을 성별구분,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학력, 주거지역, 재산규모, 시설 선호 지역, 직업, 월간 평균 수입, 시설 체험 참가 이유, 체험 참여 빈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표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68.3%; 177명)가 여자(31.7%; 8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0.9%(80명), 40~49세가 28.6%(74명), 50~59세가 21.6%(56명), 20~29세가 10.8%(28명), 60~69세가 7.3%(19명), 70세 이상이 .8%(2명)의 순으로 낮고 30~59세가 80%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 분포는 기혼이 62.2%(161명)로 나타나 미혼 36.7%(9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54.4%; 141명), 대학원 졸업(32.4%; 84명), 전문대 졸업(6.9%; 16명), 고등학교 졸업이하(6.2%; 16명)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 분포는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많고(39.4%) 그 다음으로 호남권(22.4%)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산 규모는 1~3억원 미만(40%, 114명), 5~10억원 미만(22.4%, 58명), 3~5억원 미만(14.7%, 36명), 10~15억원 미만(8.5%, 22명), 20억원 이상(5.4%, 14명), 15~20억원 미만(5.0%, 1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0억원 미만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선호 지역 분포는 경기(25.9% 67명), 강원(24.7%, 64명), 호남권(20.5%, 53명), 충청권/제주 각각(10.0%, 26명), 영남권(8.9%, 23명)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기타, 공무원, 생산직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기타는 주부, 무직 학생, 농업 등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 분포는 100~300만원 미만(33.2%, 86명), 300~500만원 미만(29.0%, 75명), 500~700만원 미만(14.7%, 36명), 00~1000만원 미만(10.0%, 26명), 1000만원 이상(7.3%, 19명), 100만원 미만(5.8%, 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험참가 이유는 자연환경과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회복을 위해, 흥미유발 및 취미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타인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빈도는 년 1회(34.7%, 90명), 분기 1회(23.9%, 62명), 월 1회(17.4%, 45명), 주 1회/월 2~3회(9.7%, 25명), 기타(4.6%, 12명)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참가자가 시설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별 특성

| 구분       | 구분           | N   | %    |
|----------|--------------|-----|------|
|          |              |     |      |
| 성별       | ①남성          | 177 | 68.3 |
|          | ②여성          | 82  | 31.7 |
| 연령       | ①20~29세      | 28  | 10.8 |
|          | ②30~39세      | 80  | 30.9 |
|          | ③40~49세      | 74  | 28.6 |
|          | ④50~59세      | 56  | 21.6 |
|          | ⑤60~69세      | 19  | 7.3  |
|          | ⑥70세 이상      | 2   | .8   |
| 결혼 여부    | ①기혼          | 161 | 62.2 |
|          | ②미혼          | 95  | 36.7 |
|          | ③기타          | 3   | 1.2  |
| 학력       | ①중학교 졸업 이하   | 1   | .4   |
|          | ②고등학교 졸업     | 15  | 5.8  |
|          | ③전문대 졸업      | 18  | 6.9  |
|          | ④대학교 졸업      | 141 | 54.4 |
|          | ⑤대학원 졸업      | 84  | 32.4 |
| 주거지역     | ①서울/경기/인천    | 102 | 39.4 |
|          | ②대전/세종/충남/충북 | 17  | 6.6  |
|          | ③광주/목포/전남/전북 | 58  | 22.4 |
|          | ④대구/창원/경북/경남 | 20  | 7.7  |
|          | ⑤강원          | 50  | 19.3 |
|          | ⑥제주          | 12  | 4.6  |
| 재산규모     | ①1~3억원 미만    | 114 | 44.0 |
|          | ②3~5억원 미만    | 38  | 14.7 |
|          | ③5~10억원 미만   | 58  | 22.4 |
|          | ④10~15억원 미만  | 22  | 8.5  |
|          | ⑤15~20억원 미만  | 13  | 5.0  |
|          | ⑥20억원 이상     | 14  | 5.4  |
| 시설 선호 지역 | ①경기          | 67  | 25.9 |
|          | ②충남/충북       | 26  | 10.0 |
|          | ③전남/전북       | 53  | 20.5 |
|          | ④경북/경남       | 23  | 8.9  |
|          | ⑤강원          | 64  | 24.7 |
|          | ⑥제주          | 26  | 10.0 |
| 직업       | ①공무원         | 11  | 4.2  |
|          | ②전문직         | 60  | 23.2 |
|          | ③회사원         | 110 | 42.5 |
|          | ④생산직         | 2   | .8   |
|          | ⑤자영업         | 47  | 18.1 |
|          | ⑥기타          | 29  | 11.2 |

|          |                 |    |      |
|----------|-----------------|----|------|
| 월 평균 수입  | ①100만원 미만       | 15 | 5.8  |
|          | ②100~300만원 미만   | 86 | 33.2 |
|          | ③300~500만원 미만   | 75 | 29.0 |
|          | ④500~700만원 미만   | 38 | 14.7 |
|          | ⑤700~1,000만원 미만 | 26 | 10.0 |
|          | ⑥1,000만원 이상     | 19 | 7.3  |
| 체험 참가 이유 | ①흥미유발 및 취미생활    | 38 | 14.7 |
|          | ②심리적 안정감 회복     | 76 | 29.3 |
|          | ③타인과의 네트워크 확대   | 14 | 5.4  |
|          | ④자연환경과 치유프로그램   | 95 | 36.7 |
|          | ⑤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 29 | 11.2 |
|          | ⑥기타             | 7  | 2.7  |
| 참여 빈도    | ①주 1회           | 25 | 9.7  |
|          | ②월 2~3회         | 25 | 9.7  |
|          | ③월 1회           | 45 | 17.4 |
|          | ④분기 1회          | 62 | 23.9 |
|          | ⑤연 1회           | 90 | 34.7 |
|          | ⑥기타             | 12 | 4.6  |

### 3.6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이훈영, 2012).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 개념의 측정 정확도의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 KMO검정을 실시하였다. KMO값의 판단기준은 .90이상일 경우 매우 양호하고, 80 이상이면 양호, 0.60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0.5이하이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 KMO값은 0.9이상(955)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들의 선정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 검정을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다”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

베리맥스를 요인회전으로 설정하였고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 선정 기준은 .5이상의 요인적재량과 .5이상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적용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바와 같이 1보다 큰 eigen values(교유값)를 갖는 요인이 여섯 개 추출되었다. 데이터의 모델 설명력은 80.443%로 나타났다.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요인 값은 그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평균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        | 요인     |        |        |      |        |       |
|--------|--------|--------|--------|------|--------|-------|
|        | 일탈적 체험 | 오락적 체험 | 교육적 체험 | 만족도  | 심미적 체험 | 재방문의도 |
| 일탈적체험3 | .754   | .240   | .197   | .250 | .215   | .202  |
| 일탈적체험2 | .727   | .233   | .246   | .127 | .266   | .278  |
| 일탈적체험4 | .725   | .198   | .197   | .188 | .234   | .202  |
| 일탈적체험1 | .662   | .160   | .271   | .177 | .207   | .272  |
| 오락적체험2 | .298   | .729   | .269   | .274 | .185   | .208  |
| 오락적체험1 | .182   | .721   | .226   | .313 | .283   | .173  |
| 오락적체험4 | .232   | .669   | .267   | .353 | .202   | .236  |
| 오락적체험3 | .181   | .638   | .260   | .070 | .439   | .320  |
| 교육적체험2 | .244   | .192   | .706   | .307 | .255   | .195  |

|        |      |      |      |      |      |      |
|--------|------|------|------|------|------|------|
| 교육적체험3 | .215 | .337 | .704 | .139 | .269 | .277 |
| 교육적체험4 | .318 | .238 | .693 | .294 | .178 | .191 |
| 교육적체험1 | .188 | .255 | .670 | .230 | .200 | .389 |
| 만족도4   | .204 | .259 | .247 | .750 | .243 | .255 |
| 만족도3   | .191 | .261 | .235 | .700 | .262 | .313 |
| 만족도2   | .265 | .224 | .250 | .612 | .325 | .365 |
| 심미적체험2 | .303 | .179 | .152 | .135 | .773 | .256 |
| 심미적체험1 | .155 | .204 | .274 | .277 | .744 | .130 |
| 심미적체험3 | .223 | .301 | .167 | .318 | .684 | .270 |
| 재방문의도2 | .327 | .108 | .173 | .186 | .213 | .814 |
| 재방문의도3 | .125 | .262 | .283 | .490 | .208 | .590 |
| 재방문의도1 | .143 | .349 | .271 | .488 | .200 | .563 |

### 3.7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평가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Cronbach's  $\alpha$  계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0.8이상의 계수의 값이면 양호하고 0.6이상의 값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한다. <표 5>에서와 같이 변수들이 0.8이상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산출되어 신뢰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신뢰도

| 변수    | 하위변인  | Cronbach's $\alpha$ |
|-------|-------|---------------------|
| 체험유형  | 교육적체험 | .909                |
|       | 일탈적체험 | .893                |
|       | 오락적체험 | .909                |
|       | 심미적체험 | .871                |
| 만족도   |       | .906                |
| 재방문의도 |       | .864                |

## IV. 실증분석의 결과

### 4.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pm 0.61 \sim \pm 0.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pm 0.41 \sim \pm 0.60$  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pm 0.21 \sim \pm 0.40$  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pm 0.00 \sim \pm 0.20$  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pm 0.81 \sim \pm 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Learnx.tistory.com, 2021). 제시된 <표 6>에  $.81 \sim \pm 1.0$  범위에 있는 상관계수는 없었다. 이로 부터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변수들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표 6> 변수간 상관관계

|       | 교육적체험  | 일탈적체험  | 오락적체험  | 심미적체험  | 만족도    | 재방문의도 |
|-------|--------|--------|--------|--------|--------|-------|
| 교육적체험 | 1      |        |        |        |        |       |
| 일탈적체험 | .703** | 1      |        |        |        |       |
| 오락적체험 | .753** | .682** | 1      |        |        |       |
| 심미적체험 | .674** | .672** | .726** | 1      |        |       |
| 만족도   | .736** | .661** | .746** | .715** | 1      |       |
| 재방문의도 | .739** | .680** | .722** | .680** | .788** | 1     |

\*\* $p < 0.001$

## 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로 독립변수간의 독립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3.235이하의 VIF가 산출되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SPSS는 회귀계수 산출시 양측검증의 유의확률(p)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된 가설은 방향적 가설이다. 이 경우에는 단측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단측검정의 유의확률은 양측검증으로부터 산출된 유의확률의 1/2이다. 앞에서 설정된 가설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유의확률의 1/2로 가설을 검정하기로 한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18)를 이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수정 95%의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를 검정 하였다. 10,000회 반복하여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유의적이라고 판단한다.

### 4.2.1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에 의한 체험유형이 치유농업체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되었다. 교육적체험( $B=.288, p=.000$ ), 일탈적체험( $B=.084, p=.036$ ), 오락적체험( $B=.298, p=.000$ ), 심미적체험( $B=.235, p=.000$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설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H1의 가설 1.1, 1.2, 1.3 및 1.4는 지지되었다. 표준화계수( $\beta$ ) 비교를 통한 만족도에 미치는 체험유형의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 일탈적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유형의 일탈적체험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고 나머지는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락적체험과 심미적체험에 비해 차이는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험유형은 만족도의 총 분산을 64.5% 설명한다( $F=115.229, R^2=.645$ ).

<표 7> 체험유형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 만족도        |         |          |       |
|----------------|------------|---------|----------|-------|
|                | B          | $\beta$ | t        | VIF   |
| (constant)     | .517       |         | 3.025**  |       |
| 교육적체험          | .288       | .283    | 4.646*** | 2.810 |
| 일탈적체험          | .084       | .101    | 1.808*   | 2.388 |
| 오락적체험          | .298       | .280    | 4.447*** | 3.002 |
| 심미적체험          | .235       | .253    | 4.419*** | 2.482 |
| R <sup>2</sup> | .645       |         |          |       |
| F              | 115.229***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4.2.2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만족도의 영향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만족도의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 만족도가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족도와 체험유형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재방문의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체험유형과 독립적으로 즉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태에서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B=.552, p=.000$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증가하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체험유형과 만족도는 재방문의도의 총 분산을 72% 설명한다.

<표 8>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 재방문의도      |         |          |       |
|----------------|------------|---------|----------|-------|
|                | B          | $\beta$ | t        | VIF   |
| (constant)     | -.494      |         | -2.668** |       |
| 교육적체험          | .222       | .188    | 3.232**  | 3.049 |
| 일탈적체험          | .125       | .130    | 2.520*   | 2.419 |
| 오락적체험          | .119       | .096    | 1.608    | 3.235 |
| 심미적체험          | .061       | .057    | 1.042    | 2.672 |
| 만족도            | .552       | .475    | 8.269*** | 2.983 |
| R <sup>2</sup> | .720       |         |          |       |
| F              | 130.312*** |         |          |       |

\* $p < .05$ , \*\* $p < .01$ , \*\*\* $p < .001$



### 4.2.3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에 의한 체험유형이 자유농업시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체험유형의 하위변수인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일탈적체험, 심미적체험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로 재방문의도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에 제시되었다. 교육적체험(B=.382, p=.000), 일탈적체험(B=.171, p=.002), 오락적체험(B=.284, p=.000), 심미적체험(B=.191, p=.003)은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H3의 가설 3.1, 3.2, 3.3 및 3.4는 지지되었다.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계수( $\beta$ )를 이용하였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체험유형의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일탈적체험, 심미적체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게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미적체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지만 일탈적체험과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유형은 재방문의도의 총 분산을 64.5% 설명한다(F=115.229, R<sup>2</sup>=.645).

<표 9>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 재방문의도      |         |          | VF    |
|----------------|------------|---------|----------|-------|
|                | B          | $\beta$ | t        |       |
| (constant)     | -.208      |         | -1.019   |       |
| 교육적체험          | .382       | .322    | 5.135*** | 2.810 |
| 일탈적체험          | .171       | .179    | 3.089**  | 2.388 |
| 오락적체험          | .284       | .229    | 3.535*** | 3.002 |
| 심미적체험          | .191       | .177    | 2.999**  | 2.482 |
| R <sup>2</sup> | .645       |         |          |       |
| F              | 115.229*** |         |          |       |

\*p<.05, \*\*p<.01, \*\*\*p<.001

앞의 결과로부터 교육적체험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일탈적체험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 4.2.4 매개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일 매개변수로 구성된 단순매개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채택하였다.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인 총효과와 만족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인 직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95%의 신뢰구간 검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검정을 위해 Bootstrap 표본을 반복하여 10,000회 추출하고 편수정 95%의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각각의 간접효과인 특정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 4.2.4.1 교육적체험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382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235 .52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는 .222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87 .3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효과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14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01 .033]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교육적체험이 양(+)의 만족도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의 증가를 가져와 교육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59만큼 재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설 H4.1은 지지되었다.

<표 10> 교육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                   | 효과   | 95% 신뢰구간 하한값      | 95% 신뢰구간 상한값      |
|-------------------|------|-------------------|-------------------|
| 총 효과              | .382 | .235              | .528              |
| 직접효과              | .222 | .087              | .358              |
| 효과                |      |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
| 교육적체험 →만족도 →재방문의도 | .159 | .065              | .258              |

Note; Boot=Bootstrapping.

#### 4.2.4.2 일탈적체험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14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041 .24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는 .103으로 나타났고 신뢰구간 [.013 .19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효과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일탈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9로 나타났으나 Bootstrap 신뢰구간 [-.011, .094]에 0이 포함되므로 비유의적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표 11> 일탈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                   | 효과   | 95% 신뢰구간 하한값      | 95% 신뢰구간 상한값      |
|-------------------|------|-------------------|-------------------|
| 총 효과              | .171 | .062              | .281              |
| 직접효과              | .125 | .027              | .223              |
| 효과                |      |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
| 일탈적체험 →만족도 →재방문의도 | .046 | -.005             | .101              |

Note; Boot=Bootstrapping.

4. 2.4.3 오락적체험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오락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28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129 .446]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121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 [-.025 .268]에 0이 포함되므로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오락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167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66 .276]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오락적체험이 양(+의) 만족도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의 증가를 가져와 오락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67 만큼 재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가설 H4.3은 지지되었다.

<표 12> 오락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                 | 효과   | 95% 신뢰구간 하한값      | 95% 신뢰구간 상한값      |
|-----------------|------|-------------------|-------------------|
| 총 효과            | .288 | .129              | .446              |
| 직접효과            | .121 | -.025             | .268              |
|                 | 효과   |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
| 오락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 .167 | .066              | .276              |

Note; Boot=Bootstrapping.

4.2.4.4 심미적체험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유형 중 심미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198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073 .324]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효과는 .066으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 [-.050 .182]에 0이 포함되므로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심미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132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 [.038 .242]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심미적체험이 양(+의) 만족도를 가져오고 한 단위 더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의 증가를 가져와 심미적체험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132 만큼 재방문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H4.4는 지지되었다.

<표 13> 심미적체험으로 인한 효과

|                 | 효과   | 95% 신뢰구간 하한값      | 95% 신뢰구간 상한값      |
|-----------------|------|-------------------|-------------------|
| 총 효과            | .198 | .073              | .324              |
| 직접효과            | .066 | -.050             | .182              |
|                 | 효과   | 95% Boot 신뢰구간 하한값 | 95% Boot 신뢰구간 상한값 |
| 심미적체험-만족도-재방문의도 | .132 | .038              | .242              |

Note; Boot=Bootstrapping.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치유농업시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매개하여 시설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이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이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오락적체험과 심미적체험에 비해 차이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일탈적체험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하동현(2009)의 테마파크 이용객 체험 연구와 김윤경(2019)의 해양관광 참가자 대상 연구에서도 교육적체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체험유형이 통제된 상황에서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가 증가하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호문정(2021), 김윤경(2019)의 연구 등 대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로서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치유농업에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체험유형 중 교육적체험, 일탈적체험, 오락적체험, 심미적체험은 모두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이 많아질수록 재방문의도가 증가되는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체험이 가장 크게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미적체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지만 일탈적체험과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경(2019) 등 선행연구에서는 일탈적체험을 제외한 모든 체험유형이 재방문의도 등 행동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일탈적체험의 경우 심미적체험과 함께 영향력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체험대상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만족도는 체험유형 중 일탈적체험을 제외하고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단위 더 큰 체험유형이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한 단위 더 큰 만족도가 양의 재방문의도 증가를 가져와 체험유형이 한 단위 작을 때보다 재방문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만족도가 교육적체험, 오락적체험 및 심미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나 일탈적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탈적체험이 만족도를 경유하여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은, 치유농업 체험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치유농업 체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도 네 가지 요인 중 현저히 작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제일 작은 편으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서는 하동현(2009)의 테마파크 이용객 대상 연구, 김윤경(2019)의 해양관광 참가자 대상 연구에서 일탈적체험 요인이 만족도 또는 만족도를 경유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참가자의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치유농업시설 체험요인을 발굴하고, 참가자들의 심리행동을 규명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치유농업 체험이 단순한 농장 경험이 아니라 배우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받는 장이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치유농업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체험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도 제공하였다. 향후, 치유농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체험 참가이유, 참여빈도 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grouping한 심층 분석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만족도 외의 새로운 매개변수들을 도입하여 체험유형과 재방문의도 간의 새로운 설명요인 발굴 등의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매개모형을 사용했으나 조절변수를 도입하여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가 분석 가능한 조건부과정보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

강대구·이효진·김경미(2018).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2), 23-54.  
 고동완·박시사(2018). 제주관광체험이 기억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1), 33-46.  
 고봉국·이재훈(2013). 치유시설 실내공간의 특성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9-143.  
 고은주·허철무(2020).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제품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7), 189-199.  
 김경미(2016).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효과와 활용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5-39.  
 김명택(2013). 골프장 고객 서비스 품질이 선택만족도 고객신뢰도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미홍(2019). 로컬푸드에 대한 체험경제이론 및 소비자의 지각적 가치와 고객만족도, 충성도의 영향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김성수(2012). 스포츠센터 실내디자인과 서비스 품질, 전환장벽이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국대학교 대학원.  
 김아라(2016). 국내 그린케어농업 운영실태 심층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김옥자·하규수(2018).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고찰. *벤처창업연구*, 13(4), 59-72.  
 김윤경(2019). 해양관광 참가자의 체험요인, 체험만족 및 행동의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1(1), 75-91.

김지희(2011). *테마파크의 체험(4Es)요인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 간 영향관계 연구: 체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불의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희동·박정운·이석원·양성범(2012). 녹색치유농업에 대한 참여의사 및 지불의사추정: 직무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1(3), 245-262.  
 녕수연(2012). *문화유산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가치를 매개변수로*.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농진청(2020). *치유농업 보도자료*. Retrieved(2021.10.17.) from [https://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info&prgId=day\\_farmprminfoEntry&currPage=2&dataNo=100000762156&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https://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info&prgId=day_farmprminfoEntry&currPage=2&dataNo=100000762156&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  
 류병덕·이정열(2015). 물고기마을의 체험요소가 방문자의 즐거움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8(5), 2249-2276.  
 문준호·최성준·이동윤·이원석(2019). 체험경제이론을 이용한 수미마을 농촌관광객의 지불의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8(6), 93-106.  
 박성연·배현경(2006). 매장 내 감각적 체험이 매장태도와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감정과 만족의 매개적 영향을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1(33), 1-13.  
 박수영(2016). *그린케어농업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기본전략*.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창연·신창열(2019). 체험경제이론에 따른 축제체험, 브랜드 가치 및 행동의도 간 구조관계 연구: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6), 207-224.  
 배승중·김수진·김대식(2019). 치유농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농촌계획*, 25(3), 89-102.  
 백안젤라(2017). *크루즈여행 서비스 품질요인이 지각된가치와 위험,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숙진(2018). 산업관광 체험요소가 브랜드 자산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7(2), 135-153.  
 손환호(2016). *카지노기업의 사회공헌행동 유형이 기업이미지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홍보유형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송인암·장태현(2016). 피부지식과 화장품지식 수준이 적극적 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소비자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35(1), 69-85.  
 송학준·이충기(2015). 템플스테이 체험이 방문객 행동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6), 303-322.  
 신동주(2010). 이벤트에서의 체험요소가 체험즐거움, 체험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9), 251-270.  
 용석홍·박철호·한수정(2019).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요소, 체험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 연구: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2), 151-172.  
 이상우·조자영·김가원·유은하·장영신(2020). 사회복지 분야 치유농업에 대한 질적 연구. *공공정책연구*, 37(2), 273-301.  
 이재곤·이규상(2012). 도시관광 행동형태에 따른 도시이미지가 방문만족55-63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50(1), 127-149.  
 이정민(2021). *숲 체험적 경험을 통한 여가만족과 웰니스 구성요인,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훈영(2012).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청람.  
 장동등(2019). *테마파크 체험, 몰입, 러브마크, 재방문 의도 및*

- 추천의도 간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송대학교 장영화·오익근(2014). 잠재관광객들의 한옥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9(1), 161-169.
- 장윤영·서원석(2014). 외래관광객의 쇼핑 체험요소가 만족도,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10), 199-219.
- 정수봉(2018).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서비스 품질 중요도: 성취도 분석과 지각된 서비스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주광수·유양호(2018). 자연휴양림의 체험요소가 체험만족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가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84, 861-881.
- 최윤영·이수범(2018). 와인관광의 체험활동이 지각된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2(1), 169-184.
-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Retrieved(2021.10.17.) from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
- 하광수·한범수(2001). 주제공원방문자의 만족과 방문 후 행동의도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25(1), 329-347.
- 하동현(2009). 테마파크에서의 체험요소에 관한 연구: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Experience Economy)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19(1), 37-47.
- 하진영·윤설민(2018). 체험경제 관점에 따른 경복궁 활용에 대한 외국인 방문객 지지도. *관광연구*, 33(1), 43-60.
- 호문정(2021). *테마파크 내의 체험요소, 체험만족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버랜드 중국방문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홍지영·이병오(2016).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3(4), 419-429.
- 황진수·박슬기(2016). 골프 토너먼트 관람객들의 특성에 따른 체험경제이론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5(7), 71-83.
- Bae, S. J., Kim, S. J., & Kim, D. S.(2019). Priority Analysis of Activation Policies for Agro-healing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5(3), 89-102.
- Back, A.(2017). *A Study of Service Quality of Cruise Travel on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orea.
- Boo, S. J.(2018). Effects of Experiential Elements of Industrial Tourism on Brand Equity and Satisfaction: Focused on Pine & Gilmore's Experience Economy Theory. *Journal of Hotel & Resort*, 17(2), 135-153.
- Chang, Y. H., & Oh, I. K.(2014). Impacts of potential tourists' Hanok image on behavioral intention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9(1), 161-169.
- Choi, Y. Y., & Lee, S. B.(2018). The influence of wine tourism experience activities on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Korean wineries.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32(1), 169-184.
- Duan, B., Arcodia, C., Ma, E., & Hsiao, A.(2018). Understanding wine tourism in China using an integrated product-level and experience economy framework.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10), 949-960.
- Elings, M., & Hassink, J.(2006). Farming for Health in the Netherlands. *Farming for Health*, 163-179.
- Gim, G. M., Moon, J., Jeong, S. J., & Lee, S. M.(2013).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 Agric. Ext. Community Dev*, 20(4), 909-936.
- Ha, D. H.(2009). Experience on Theme Park -Pine & Gilmore's Experience Economy Perspectiv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 Photo-Geographers*, 19(1), 34-47.
- Ha, J. Y., & Yoon, S. M.(2018). Support of foreign visitor toward application of Gyeongbokgung Palace based on the experience econom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3(1), 43-60.
- Ha, K. S., & Han, B. S.(2001). The Determinants of Theme Park visitor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Tourism Science*, 25(1), 329-347.
- Hassink, J.(2010). *Carer farms/social farming/green care: a Netherlands perspective*.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 Hassink, J., John G., & Willem, H.(2015). New Practice of Farm-based Community-oriented Social Care Servic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41(1), 49-63.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Second Edition)*, Guilford.
- Hong, J. Y., & Lee, B. O.(2016).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for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Using the AHP Method.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3(4), 419-429.
- Hosany, S., & Witham, M.(2010). Dimensions of cruisers' experience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comme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3), 351-364.
- Hu, W. J.(2021). *Theme park experience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research centered on Chinese tourists in Everland*. Master's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 Hwang, J., & Han, H.(2018).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experience economy to luxury cruise passengers.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8(4), 478-491.
- Hwang, J., & Lee, J.(2019). A strategy for enhancing senior tourists' well-being perception: Focusing on the experience economy.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3), 314-329.
- Hwang, J. S., & Park, S. G.(2016). A Study on The Experience Economy Based on The Golf Tournament Spectators'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5(7), 71-83.
- Iacovo, Di. F., & O'Connor, D.(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 Jang, Y. Y., & Seo, W. S.(2014). Effect of shopping experience factors of foreign tourists on satisfaction and emotional commitment. *TSSK 2014 Proceedings*, 38(10), 199-219.
- Ju, G. S., & Yoo, Y. H.(2018). The Effect of the Experience Factors of Recreation Forest on the Experience Satisfaction and th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Involvement.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84, 861-881.
- Jung, S. B.(2018). *A Study on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Service Quality in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ervice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 Jung, S. J., Hassink, K. M., Gim, Yoo, E. H., Jang, Y. A., Lee, S. M., & Park, D. K.(2016). *Understanding of agro-*

- healing(care farming). RDA.
- Kang, D. K., Lee, H., & Gim, G. M.(2018).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0(2), 23-54.
- Kawate, T.(2015). The Status and Support Policy of Welfare -Agriculture in Jap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o-Healing Services and Rural Tourism*: 67-84.
- Kim, A. R.(2016). *In-depth Analysis on Green Care in Agriculture of Korea*.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m, G. M.(2016). Healing Agricultural Effects and Utilization Plan Using Agricultural Resource. *KCLS 2016 Proceedings*, 139-143.
- Kim, H. D., Park, J. U., Lee, S. W., & Yang, S. B.(2012). The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and Participate on the Green-care in Agriculture. *Journal of Hotel & Resort*, 11(3), 245-262.
- Kim, J. H.(2011).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experience factors, satisfaction level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willingness to pay more for experience contents*. Master's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Korea.
- Kim, M. H.(2019). *Study on the Theor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Economy Regarding Local Food, the Perceived Value by Consumers and Loyalty*.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 Kim, M. L.(2013). *The Effect of Customer Service Quality in Golf Course on Selection Satisfaction, Customer Reliability and Consumer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Kim, O. J., & Ha, K. S.(2018).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Healing Agricul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59-72.
- Kim, S. S.(2012). *Effect of Interior Design of Sports Center, Service Quality and Switching Barrier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Kim, Y. K.(2019). A Study on Effects among Experience Factors, Experienc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Marine Tourism Participant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1(1), 75-91.
- Ko, B. K., & Lee, J. H.(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ior Spaces on the Healing Facilities.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KHA*, 139-143.
- Ko, D. W., & Park, S. S.(2018). The effects of Jeju tourists' experience on memory and behavior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1), 33-46
- Ko, E. J., & Heo, C. M.(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ntion to Use on Supply Condition and Offer Program of Care Farm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7), 189-199.
- Lee, H., Jung, S., & Seong, M.(2019). The Effect of Professional Sport Spectator's Experience Economy Factors on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JAFEB)*, 6(3), 269-282.
- Lee, H. Y.(2012). *Research Methodology*. Seoul; Cheong Ram.
- Lee, J. K., & Lee, K. S.(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urban tourism Behavior patten on urban image influence upon Visi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50(1), 127-149.
- Lee, J. M.(2021). *The structural effect of quality of life on leisure satisfaction and wellness factors through forest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Lee, S., Jeong, E., & Qu, K.(2019). Exploring Theme Park Visitors' Experience on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A Utilization of Experience Economy Model. *Journal of Quality Assurance in Hospitality & Tourism*, 1-24.
- Lee, S. W., Cho, J. Y., Kim, K. W., Yu, E. H., & Jang, Y. S.(2020). A qualitative study on care farm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Public Policy*, 37(2), 273-301.
- Manthiou, A., Lee, S. A., Tang, L. R., & Chiang, L.(2014). The experience economy approach to festival marketing: Vivid memory and attendee loyalty.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8(1), 22-35.
- Moon, J. H., Choi, S. J., Lee, D. Y., & Lee, W. S.(2019). A study for the willingness to pay of Sumi-village rural tourists using experience economy theory.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28(6), 93-106.
-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21). *Statistics on the cause of death. in 2020*. Retrieved (2021.10.17.) from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
- Ning, X. Y.(2012). *A Study of th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with the choice Attributes of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perceptive value parameter*.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 Oliver, R. L.(1993). Cognitive, affective, and attribute bases of the satisfaction respon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3), 418-430.
- Park, C. Y., & Shin, C. Y.(2019).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the festival experience, brand value, and behavior Intention based on experience economy theory: Focused on Hantangang River Ice Trekking festival.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31(6), 207-224.
- Park, S. Y.(2016). *Basic scheme for systematic introduction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ark, S. Y., & Bae, H. K.(2006). Sensoty experience effects on store attitude and loyalt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satisfaction.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11(33), 1-13.
- Philips, D. M., & Baumgartner, H.(2002). The Role of Consumption Emotions in the Satisfaction Respons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243-252.
- Pieska, S., Luimula, M., & Suominen, T.(2019). Fast Experimentations with Virtual Technologies Pavethe Way for Experience Economy. *Acta Polytechnica Hungarica*, 16(6). 9-26.
- Pine, B. J., & Gilmore, J. H.(1998). Welcome to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6, 97-105.
- Roest, A. E., Oosting, S. J., Ferwerda, R. T., & Caron-Flinterman, J. F.(2010). Regional platforms for green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In Proceedings*

- IFSA: Building sustainable rural futures*. The added value of systems approaches in time of change and uncertainty, Vienna, Austria, 4-7 July, 2010 (pp. 306-314).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20). *Press release*. Retrieved (2021.10.17.) from [https://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2&dataNo=100000762156&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https://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prmninfo&prgId=day_farmprmninfoEntry&currPage=2&dataNo=100000762156&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3). *Strategic long term planning of green care based on agro-healing survey in Korean*. RDA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17). *Design of Agro-healing service in Agriculture Considering Life Cycle*. RDA
- Ryu, B. D., & Lee, J. Y.(2015). Effects of Fish Village's Experiential Elements on Pleasure and Satisfaction of Fish Village Visitor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8(5), 2249-2276.
- Shin, D. J.(2010). The Effects of Experiential Factors on Enjoyment,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an Event: An Application of Pine & Gilmore's Experience Theo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4(9), 251-270.
- Son, H. H.(2016). *Corporate philanthropy influencing corporate image and revisit intention in the casino corporation: focusing on comparison of promotion types*.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Song, I. A., & Jang, T. Y.(2016). The Effect of knowledge levels of skin and cosmetics active information search: The modulating of cosmetics consume propensity. *Social science review*, 35(1), 69-85.
- Song, H. J., & Lee, C. K.(2015). The Influence of Temple Stay Experience on forming Visitor's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Experience Economy Theor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0(6), 303-322.
- Weiner, B.(2000). Attributional Thoughts about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 382-387.
- World Health Organization.(2019). *Suicide prevention(SUPRE)*. Geneva: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1). *Newsroom (Dementia)*. Geneva: WHO.
- Yong, S. H., Park C. H., & Han S. J.(2019). The Effects of Experience Economy Factors(4Es), Experience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of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Focused on The Experience Economy Theory of Pine and Gilmore. *Journal of Tourism & Leisure Research*, 31(2), 151-172.
- Zhang, D. D.(2019).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theme park experience, flow, lovemarks, and revisit & recommendation intention: focusing on the experience economy(4Es)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Woosong University.

# A Study on the Effect of Experience Types of Experience Economic Theory on the Revisit Intention of Healing Agricultural Participa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Sang-Hyuk Lee\*

Chul-Moo He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causal and intention to revisit healing agricultural facilitie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the effect of experience type was analyzed on revisit intention by using facility experience satisfaction as a mediator for healing agriculture participants. The sub-variables of experience types were divided into educational experience, devious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nd aesthetic experience. 259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e people who experienced healing agriculture programs in the whole countr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PROCESS macro v3.4 and SPSS v22.0 were used to analyze based on the singular simple mediation model which contains a single mediator. First, all types of experi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revisit intention independently of experience type. Third, all types of experience had a positive (+) effect on revisit intention. Fourth,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experience type and revisit intention except for deviating experience among experience types.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for the adjustment of mediators other than the mediator introduced in the study or the controlled mediated analysis through the conditional process model in which the moderator variable is introduced.

*Keywords: healing agriculture, educational experience, deviant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aesthetic experience,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

\* First Author,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hlee@efact.or.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cmheo@hoseo.edu